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11. 8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건설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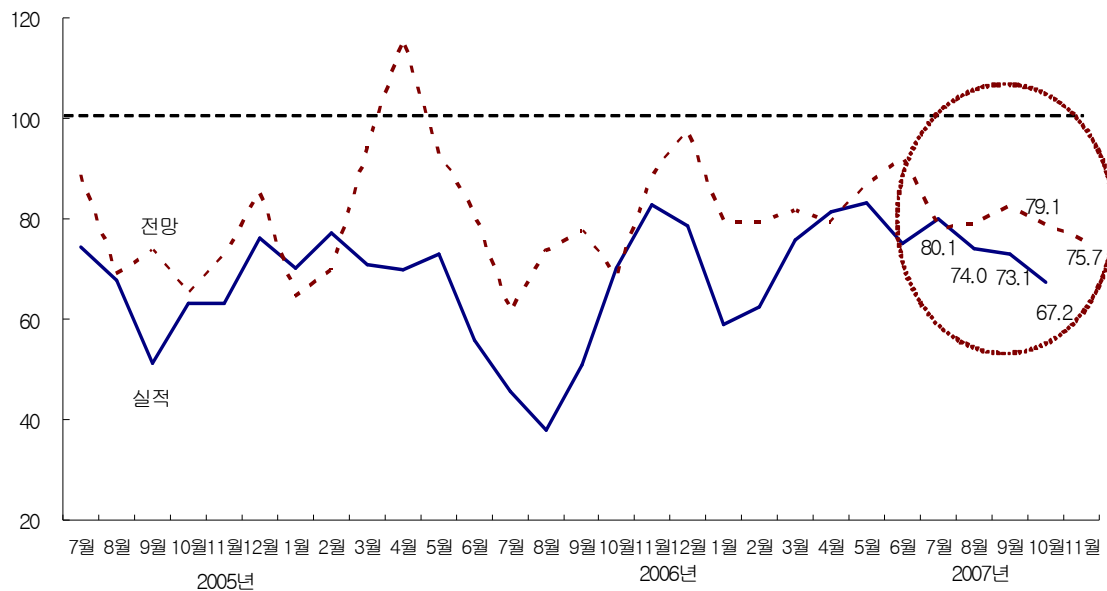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9p 하락한 67.2를 기록함으로써 8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 지난 8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물량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6.1p 하락했는데, 10월은 계절적으로 통상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함.
 - 3개월 연속 지수 하락은 올 들어 처음임.
 -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경기실사지수는 결국 70선이 무너졌고, 체감경기 침체수준의 회복은 그만큼 더 어려워짐.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22.2p나 하락한 77.8을 기록하고, 중소기업체가 전월대비 4.1p 하락한 가운데,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9.3 상승한 73.3을 기록함으로써 대형업체가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중소기업체 지수는 다시 50선이 무너진 47.9를 기록함으로써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함.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대비 소폭(2.2p) 상승한 79.9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물량지수가 8, 9월에 이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침체됨.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72.4, 주택 69.2, 비주택 75.0을 기록해 지난 8, 9월에 이어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100.0, 중견업체 86.7, 중소기업체 48.6을 기록해 공사물량지수의 업체 규모별 양극화는 여전함.
-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지수가 더욱 악화됐으며, 자금조달지수도 8월에 이어 계속 좋지 않음.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95.7, 95.0을 기록하여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지수도 88.5로 비교적 양호하나, 자재비지수가 71.6을 기록하여 3월 이후 계속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83.0, 86.1을 기록한 가운데,
 - 중소기업체의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지수가 전월비 각각 26.5p, 15.8p 하락한 68.1, 65.3을 기록해 중소기업체의 자금관련 상황이 급격히 나빠짐.

2007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대비 5.9p 하락한 67.2 기록,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 2007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7.2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9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침체의 수준은 전월대비 좀 더 악화됨.
 - 이로써 지난 8월 계절적 요인과 주택물량 침체의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6.1p 하락한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임.
 - 결국 지난 3월 이후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하던 경기실사지수는 60대 후반으로 하락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가 77.8, 중견업체는 73.3, 그리고 중소기업은 47.9를 기록해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는 여전함.
 - 대형 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22.2p나 하락하여 전체 경기실사지수 하락을 주도함.
 - 반면, 중견업체는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9.3p 상승한 73.3을 기록함.
 - 중소기업도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4.1p 하락해 47.9를 기록함으로써 체감경기 침체수준과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 수준은 여전히 매우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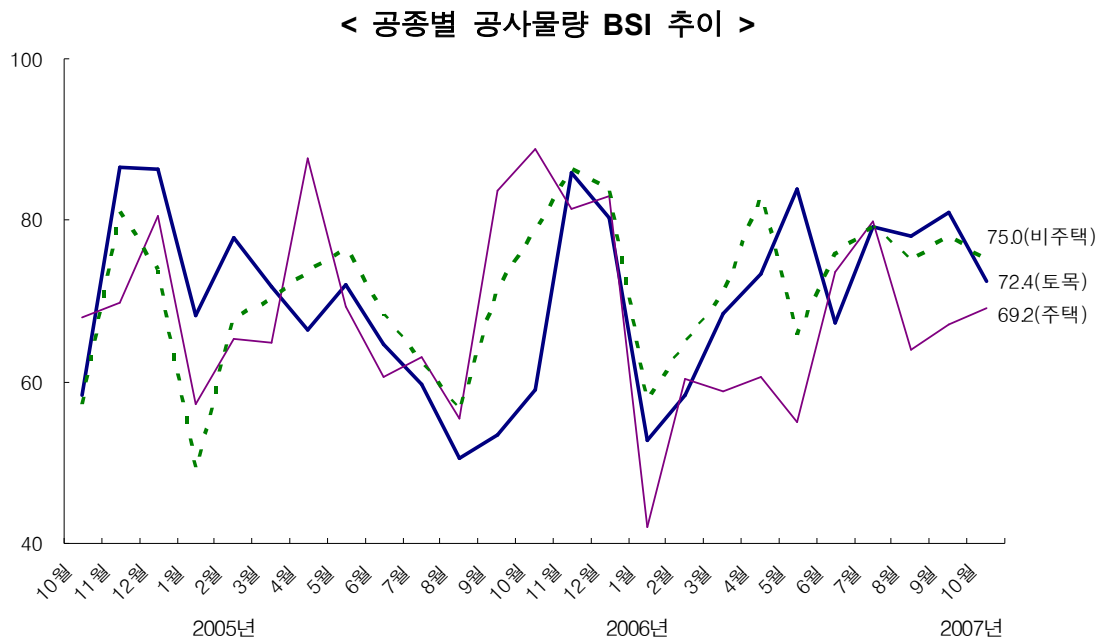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6년 12월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8.7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3.1	67.2	79.1	75.7
구 분 별	대형	90.0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100.0	77.8	90.0	88.9
	중견	85.0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64.0	73.3	84.0	73.3
	중소	58.3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52.0	47.9	60.8	62.9
지 역 별	서울	82.1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5	76.6	82.0	81.8
	지방	71.8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48.5	50.5	74.5	65.5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76.6, 지방업체가 50.5를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11.8나 하락하여 전체 경기실사지수 하락을 주도함.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2.0p 상승한 50.5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지수 자체는 50대 초반에 불과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심각함.
- 2007년 11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5.7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88.9, 중견업체는 73.3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은 62.9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2.2p 상승한 79.9 기록,
전월에 이어 주택물량지수 상대적으로 가장 침체

- 2007년 10월 공사물량지수는 79.9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2.2p 상승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은 매우 소폭 개선됨.



- 공종별로 보면 토목 72.4, 주택 69.2, 비주택 75.0을 기록해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물량지수, 비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8.5p, 3.1p씩 하락한 72.4, 75.0을 기록해 전월에 비해 물량침체수준이 좀 더 악화됨.
 -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2.2p 상승한 69.2를 기록해 전월대비 체감하는 물량침체수준이 소폭 개선됐으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60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가장 침체수준이 심각함.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 100.0, 중견업체 86.7, 중소기업체

48.6을 기록함.

- 전월대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과 동일하고, 중견업체가 10.7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4.7p 하락하여, 물량지수의 업체 규모별 양극화는 더 심화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9.9	100.0	86.7	48.6	91.4	59.7
	전망	91.7	122.2	93.1	54.3	106.6	67.6
토목	실적	72.4	111.1	53.6	48.6	82.1	55.9
	전망	75.8	100.0	67.9	56.5	82.0	66.1
주택	실적	69.2	88.9	78.6	35.5	78.9	52.6
	전망	79.3	88.9	96.4	48.4	86.0	67.5
비주택	실적	75.0	88.9	85.7	46.4	85.3	58.4
	전망	78.2	100.0	78.6	52.2	87.8	62.9

주 : 실적은 2007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1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1.2p 상승한 91.4를 기록했고, 지방업체도 전월대비 2.5p 상승한 59.7을 기록하여 서울과 지방업체 모두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량침체의 수준이 소폭 개선된 가운데, 서울과 지방업체간 물량지수의 양극화 현상은 아직 여전함.
- 2007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1.7을 기록하여 10월보다는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의 수준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지수 더욱 악화,
자금조달지수 8월에 이어 나쁜 상황**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95.7, 95.0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는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지수도 88.5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않으나, 자재비지수가 71.6을 기록하여 3월 이후 계속해 자재비 상황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3.0	88.9	90.0	68.1	86.2	76.2
		전망	84.4	88.9	90.0	72.9	87.4	78.8
	자금조달	실적	86.1	100.0	90.0	65.3	95.7	70.1
		전망	78.4	88.9	80.0	64.3	82.5	70.5
인력	수급	실적	95.7	100.0	103.3	81.9	106.8	79.6
		전망	101.2	111.1	103.3	87.1	110.2	87.4
	인건비	실적	88.5	100.0	90.0	73.2	96.3	76.9
		전망	80.3	88.9	76.7	74.3	81.2	78.8
자재	수급	실적	95.0	100.0	96.7	87.3	101.2	87.7
		전망	95.7	100.0	100.0	85.7	103.1	85.2
	비용	실적	71.6	100.0	60.0	51.4	79.7	57.8
		전망	70.1	88.9	60.0	59.4	75.7	61.8

주 : 실적은 2007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11월 예측지수임.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전월대비 3.4p 하락한 83.0을 기록하여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 수급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조달지수도 전월보다는 침체수준이 조금 개선됐지만 지수 자체는 86.1에 불과해 여전히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공사대금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26.5p, 15.8p씩 하락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관련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